

나주시 '정명 천년 기념공원' 부지 확정

나주역 앞 근린공원 최종 선정...6월 착공·12월 완공 목표
'과거와 미래 잇는 천년의 길' 테마 365m 성벽과 공원 조성

나주시는 '정명 천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나주역 앞 근린공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 열린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제4차 대표협의회에서 '정명 천년 기념공원' 사업부지를 나주역 앞 일원으로 정하고 테마·디자인 방향 등을 확정했다.

정명 천년 기념공원은 송월동 KTX나주역 앞 근린공원 일원에 국비 8억원 등 총 사업비 16억을 투입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천년의 길'이라는 테마로 총길이 365m에 성벽과 공원으로 조성된다.

당초 천년 전망탑은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경현동 한수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2차리에 걸친 문화재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연이어 부결됐다.

또 이후 거론된 남산공원 등 후보지도 문화재정 사적분과위원의 현장 실사(자문)에서 '문화재 구역 내 전망탑 건립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돼 4차례 대표협의회

끝에 사업부지를 나주역 앞 근린공원 일원으로 변경해 최종 선정했다.

대표협의회는 기념공원을 탑 형태의 건축물 대신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살려 전망·보행·공원 등을 갖춘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표협 관계자에 따르면 부지 선정 배경으로 ▲나주역이 나주 관광의 첫 관문으로 첫 인상을 좌우한다는 점 ▲현재 조성 중인 공원(나눔 숲)에 문화시설(에너지클러스터)이 더해진 열린 공간(open space)이자 도시거점으로 기대되는 점 ▲국도13호선과 나주역 길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기념공원의 핵심인 성벽 디자인은 나주를 상징하는 드넓은 나주평야를 감싸 도는 영산강 물줄기와 북악리 고분 인근에서 발굴된 목간(木簡)의 태극 문양을 접목시킨 형태로 건립된다.



나주 '정명 천년 기념공원' 조감도

또 성벽은 총 길이 365m로 과거 천년과 미래 천년의 나주를 연결하는 이음의 길을 상징하는 나주가 살아온 오랜 시간과 유구한 역사를 의미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5월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거쳐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6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의 원년인 2019년 연초 우리 시는 한전공대 유치, 16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 등을 통정명 천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총 24건의 기념사업을 추진해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영산포 흥어축제.

코 찜~한 영산포 흥어 맛보러 오세요

12~14일 영산포 흥어축제

코끝을 톡 쏘는 전라도에 대표 음식 영산포 흥어축제가 개최된다.

나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 공원 일원에서 '제15회 영산포흥어축제'를 개최한다.

영산강 푸른 물결과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인 영산강 둔치공원에서 펼쳐지는 영산포 흥어축제는 막걸리를 곁들인 흥타령, 흥어회, 찜, 흥어애국 등 먹거리와 불거리, 즐길 거리 등 오감만족 축제로 정평이 났다.

6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산포 흥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전해져 온다. 이 중 고려 말 당시 왜구의 침략을 피해 육지로 이주한 흑산도 인근 주민들이 5월 또는 보름 이상 걸려 지금의 영산포에 도착해 보니, 부패가 심해 버려진 다른 생선(어류)과는 달리, 폭삭은 흥어는 먹어도 뒤탈이 없고 먹을수록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 즐겨먹기 시작했다

나주가 본관인 정약전이 집필한 '자산어보(鱖山魚譜)'에서도 '나주 사람들은 흥어를 삭혀서 먹는다'고 기록돼있는 만큼 영산포 흥어는 유래가 깊다.

이런 축제에서는 '흥어 예쁘게 썰기', '흥어 시식 왕 선발', '흥어 탑 쌓기', '흥어 낚시 경매'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과 '나주시민가요제', '나주시립국악단&합창단 공연', '영산포 선창 콘서트',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축제 개막식에는 주민들이 영산포 선착장에 도착한 황포돛배에서 흥어를 옮긴 뒤 흥어 배입항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 행사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흥어 연 만들기, 비눗방울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 상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보 개방으로 다야선착장에서 이전 운영했던 황포돛배를 영산포 선착장으로 이전해 유람을 개시한다.

김민주 영산포흥어축제추진위원장은 "봄날의 나른함과 지루함을 확 날려버릴 수 있는 이번 축제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꼭 방문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가주 17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과수분야 보조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제공)



지난해 5월 빛가람 호수공원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열렸던 나만의 전시회 '한국화' 작품 전시. (나주시 제공)

고품질 배 생산기반 구축 국제경쟁력 확보

나주시, 시설 현대화 등 추진

나주시가 고품질 배 생산 기반을 구축해 국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나주시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배와의 경쟁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배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현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과수 고품질 현대화 ▲일반과수 생산시설 지원 ▲과원정비지원 ▲고품질 무 지베렐린 처리 배 계약출하 지원 ▲배 수출전문단지 육성 ▲배 수출축진 해외 판촉 행사지원 ▲배 소포장재 유통기반 구축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농가주 170여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2019년 과수분야 보조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배 소비가 정체되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 품질을 향상시켜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품질 배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나주 배 명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만의 전시회' 개막...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서

나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빛가람 호수공원에 위치한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2층 전시실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나만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8일부터 보름 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단체 아마추어 8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사진, 한국화, 도자기공예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5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4월은 이호준 작가 사진전 '남도를 걷다'(제목)를 시작으로, 5월 도자기 공예(작가 이신애)와 LED크리스탈플라워(작

가 오지빈), 6월 한국화(작가 백은영) 작품 등이 올 상반기에 전시된다.

하반기인 9월 비구상 한국화(작가 조민지, 박현미), 10월 팝아트(작가 김은진)에 이어, 11월과 12월은 빛가람 한국화 반과장복수 작가의 한국화 작품 전시로 마무리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전은 시민 스스로가 문화생산의 주체가 돼,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을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청소년 위한 'SW 체험·교육센터' 조성

과기부 공모 선정 71억 투입

나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을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킬 '소프트웨어(AR(증강현실)·VR(가상현실), 3D프린터),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각종 SW교육과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 등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컴퓨터 명령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SW코딩' 과정은 지난해부터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센터 고용과 연계시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 나주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수료생을 'SW교육 지도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SW체험·교육센터를 조성한다. 센터 입지는 현재 폐교된 나주산포초등학교 덕레분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센터가 준공되면 'SW코딩',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3D프린터',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각종 SW교육과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컴퓨터 명령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SW코딩' 과정은 지난해부터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센터 고용과 연계시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 나주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수료생을 'SW교육 지도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77
창사77주년

2019. 4.18목 - 5.28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 청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9. 4. 3(수) - 4. 10(수)

미술·작문 부문
2019. 5. 13(월) - 5. 15(수)

참자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8일(목)~5월 28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제 64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이 큰잔치!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사 10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9년 4월 15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 상 우수학교상
개인 및 단체 :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